

대림산업, 복합화력발전 사업 진출

고령군에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 1880만MW로 2018년 완공

고령군이 1조5000억원을 투자해 LNG(액화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립한다.

고령군은 10월30일 대림산업과 오곡리 신고령 변전소 인근에 1880만MW(940만MW 2기)의 LNG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MOU(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2014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해 건설 승인을 받고 2016년 착공할 계획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2018년까지 발전소를 완공해 대림산업이 30년 동안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NG 복합 화력발전소 발전량은 250만 대구시민 절반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생산 즉시 지하 선로를 통해 100m 거리의 신고령 변전소로 보내진다.

고령군 기업투자지원 전병렬 계장은 “복합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 30만명 고용창출과 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협약체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10>